



16면

‘착한 세무사’가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전주매일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음 12월 26일) 제295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탄소산업 · 농식품 상생일자리 지정 본격화

〈전주〉

〈익산〉

도, 전주형 · 익산형 상생일자리 협약식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등 47개 기관이 탄소산업, 농식품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에 본격 돌입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도는 27일 전주시 익산사에서 ‘상생일자리 협약’을 각각 맺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4면 · 7면
상생형 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주민, 지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지역에 특화된 경쟁력 있는 일자리 모델을 협약에 담고, 신규투자자와 일직리를 창출할 때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7일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전북 익산형 농식품 상생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농식품 수도 익산, 농식품산업 메카로 도약

전북 익산형 상생일자리 협약식이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27일 열렸다. 이날 협약식은 대한민국 농식품 수도 익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한국농축 익산지부 전세성 의장, 김선태 익산시 농업회의소 회장 등 25개 기관 대표가 참여해 ‘농사민정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수홍 국회의원, 도·시·의원, 농림부 등이 참석해 익산형 일자리 모델 미련과 출발을 축하했다.

익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 농업과 식품이 결합한 농사민정형의 상생 모델로,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형 일자리는 지역기업인 하림그룹이 식품 중소기업, 농업법인 및 지역농가와 함께 동반성장을 실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하림그룹과 식품 중소기업은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 원재료를 지역에서 조달하고 농가는 다년간의 계약체제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하림그룹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제4산업단지에서 5년간 3,773억원을 투자해 63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

익산형, 농식품 결합 ‘농사민정 상생모델’

전주형, 전국 최초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하림 · 효성, 대규모 투자 · 상생요소 결합

업 19개사도 협업기업으로 참여해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출발함에 따라 그 기대가 더 크다.

상생협약 주요내용은 ▲안정적인 계약체제 시스템도입, ▲수급안정협의회 운영 농산물 안정적 수급 및 농가의 생산비용 이상 소득보장 안정 ▲대중소 기업간 공동구매 등 공동협력사업 추진 ▲근로조건 개선, ▲농사민정 상생기금 조성 등이 있다.

정현을 시장은 “올해 안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을 목표로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 농식품협업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더 높은 성장,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 전주형 상생일자리 협약식도 같은날 오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렸다.

전주, 더 높은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송하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권기봉 한국농축 전북지역본부 의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이진중 효성첨단소

재(주) 대표, 신용만 효성첨단소재(주) 근로자 대표, 김광수 (주)테크카본 대표, 황승국 (주)KGF 대표 등 노사민정 대표 22명이 참여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부 장관,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등이 전주형 일자리의 새로운 출발을 경축했다.

전주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 탄소산업 모델로 탄소섬유-중간재-부품-응용 제품까지의 전단계 탄소생태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주형 일자리는 효성첨단소재(주) (주)테크카본, (주)KGF 등 7개사가 참여해 오는 2024년까지 1,662억 원을 투자하고, 232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 외에도 탄소소재 투자 의향기업인 비나텍, 라지, 피치케이비, 테라엔지니어링, 란스A&C, 에니에스, 씨디엘 등 7개사가 협력기업으로 동참해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상생요소로는 ▲효성의 원부자재 합인 및 안정적 공급, 기술지원, 해외판로 지원 등을 통한 참여기업 경쟁력

강화, ▲정규직 채용, 선진임금제 도입, 노동법 확대 적용 등 고용안정, ▲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으로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 ▲환경폐기물 공동처리 등으로 주민신뢰 확보 등을 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 전주형 일자리를 지역 핵심산업인 탄소산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해 탄소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것”이라면서 “노사민정이 연대 협력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대한민국 탄소 1번지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전북 전주형 일자리에 거는 기대감을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주형 일자리로 효성의 지역상생과 동반성장의 의지를 확인해 대한민국 탄소산업 도약을 위한 날개를 달았으며, 익산형 일자리는 향토기업 하림의 종합 식품기업으로의 성장과 함께 전북이 국가식품산업으로의 도약의 기회를 확인했다”면서 “이번 협약의 실천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지정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그 어느해보다 따뜻한
설명회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2월 7일 신문 발행합니다.

송하진 도지사에게서 들어보는 상생형 일자리

“전북 지속성장 동력 예상”

전북 전주형,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27일 개최됐다. 지난해 2월 군산형 일자리 지정에 이어 전주, 익산까지 3개의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를 만나 전북 상생형 일자리 필요성, 전주형 · 익산형 모델 설명, 상생형 일자리 지정 가능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상생형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신 산업지도 개편이 필요한 이때, 군산 전기차, 전주 탄소산업, 익산 농식품은 미래 성장을 위한 큰 먹거리로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상생형 일자리를 지정 받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부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더 큰 투자 근로자는 더 좋은 일자리,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주형 일자리와 익산형 일자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효성의 양보에서 시작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효성이 톨 큰 약속을 했습니다. 탄소소재 부족 사태가 오히려도 참여기업에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할인까지 해주니, 전주형 일자리 기업들은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화 지원도 확대하므로 탄소 신제품 연구개발, 기술제휴, 해외 판로 개척, 장비 공동활용까지 경쟁력 강화 요소도 많습니다.

참여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복지지원도 하고, 5인 미만 소기업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일자리 질까지 개선될 것입니다. 전문인력 확보도 유리에 질 것입니다.

또한 탄소기업 집적화, 탄소소재

수요 확대에 결국 효성에도 내일을 위한 더 큰 투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익산형 일자리는 향토기업 하림의 결단이 중요한 농업협력 상생 모델입니다.

다년간 안정적으로 계약체제를 하고, 지역 농산물 물량을 30%에서 60%로 확대하며, 공동품질경영과 수급안정협의회를 통해 유통비 절감까지 실현되면, 삼락농정의 비전대로 제 값받는 농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림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물류, 마케팅, 연구개발, 교육 훈련까지 추진하므로 비용절감은 물론, 매출확대도 가능해집니다.

근로자 복지·농업 농촌 활성화·식품기업 공동사업에 활용할 기금을 함께 조성하는 것도 지역상생의 큰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연말까지 지정 목표로

하반기에 신청 준비할 것”

▲상생형 일자리, 지정될 수 있는지요?

이번 협약을 준비하며, 일자리위원회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주형, 익산형 모델이 산업부, 일자리위원회, 농림부, 기재부 및 청와대 일자리수석실까지 보고가 됐으며, 부처 반은 또한 상생요소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SNS로 전주형, 익산형 상생일자리를 응원해주셨으므로, 그간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상생형 일자리 지정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연말까지 상생형 일자리 지정을 목표로 하반기 지정 신청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호상 기자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호랑이
기운
반드시
힘찬새해
되세요

정읍시의회
www.jcc.or.kr

